

#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中央大學校教授 김 성 훈

## I. 시장경제적 사회주의의 등장

### 1. 8자방침

중국대륙을 흡사 내란의 상태로 몰아 넣었던 문화혁명에 의한 대혼란(1966~76)은 모택동의 사망(1976)과 4인방 등 극좌 세력의 축출을 대단원으로 하여 등소평이 재등장하고 그에 의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막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1978년 2월 제5기 전인대에서 농업·공업·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계획이 채택되고 1979년 6월 동2차회의에서 화국봉총리에 의해 국민경제 발전의 「八字方針」이란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줄곧 중국 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조정·개혁·정돈·제고」를 말한다.<sup>1)</sup>

---

1) 중국이 1958~60년 기간의 “두 다리로 걸자!”라는 「술로건」 아래 전개한 탈 소련형 경제정책, 이른바 대약진운동이 연속된 자연재해와 소련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실패하게 되자 1961년 1월 중공당 제8기 9중전회에서 劉少濤와 등소평등 실용주의자들이 「조정·강화·충실·향상」이란 8자방침을 설정한 바 있다.

첫째, 이제까지 중공업일변도의 경제시책을 농업과 경공업을 주축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둘째, 이른바 첩반완(쇠·밥그릇), 대과반(한술밥), 평균주의(균등분배) 당우위 중앙계획체제 등을 “개혁”하여 능력과 능률에 따른 인사관리와 성과분배, 전문경영인 중심의 기업관리, 경영책임제 및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시장경제원리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해외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정돈)”하고 사회적 낭비를 줄여 나가며,

끝으로, 양보다 질의 향상에 노력하며 기술수준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소유제도, 계획방식, 기업경영관리형식, 가격 및 유통제도분배방법 등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와 경영방식,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가 사회주의제도에 뿌리 깊게 접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등소평의 유명한 “검은 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 잘 잡는 놈이 최고”라는 후묘론백묘론의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의 선언을 보게 된다.

## 2. 「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허와 실

50년대초 중국에 도입되어 실시된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경제체제<sup>2)</sup>의 점차적인 퇴색과정과 더불어 일찌기 「유고슬라비아」의 시장경제사회주의체제의 발전에 고무된 Jan Tinbergen의 이른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sup>3)</sup>을 다시 한번 중국방식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Robert F. Dernberger는 「소비에트」형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와 구별되는 3원칙으로서 ① 자원과 기업체의 국가소유, ② 중앙집권적인 계획 및 집행 ③ 가격, 가치에 의한 자원배분이 아닌 수량 목표에 의한 계획집행을 들고 있다.

3) Jan Tinbergen, *The Theory of the Optimum Regime*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59. pp. 264~304.

(김태홍, 중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분석, 단국대, 1986서 인용)

엄밀히 말하여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시도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인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가 Karl Marx-V. L. Lenin의 고전적 공산주의이론과 반드시 일치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문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스탈린」 시대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정설<sup>4)</sup>이지만, 아뭏든 제2차대전후 공산화된 동구제국, 중공, 북한, 몽고, 월맹 등이 다루어 이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교과서인양 채택하였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체제는 장기적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수정 내지는 개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실증적 분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소개한 Tinbergen의 수렴가설이며, 그외에도 Simon Kuznets와 Hollis Chenery에 의해 동체제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경제개혁의 불가피성을 상관관계로서 증명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sup>5)</sup>

비슷한 분석으로서 Abraham Bergson<sup>6)</sup>은 「소비에트」형 경제체제가 기술의 낙후성과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 기술과 자본의 효율적인 도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진단한다.

다른 한편 정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개혁이 필연적인 것 같다.

Alexander Gershenkron<sup>7)</sup>은 「소비에트」형 경제체제가 경제개발에 노동자

4) Robert F. Dernberger,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China's Economy Looks Toward the Year 2000*, Vol.1,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Washington, D.C. 1986, p.21.

5) Simon Kutzents,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3 Hollis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0 및 *Patterns of Development, 1950-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6) Abraham Bergson, "Development Under Two Systems; Comparative Productivity Growth Since 1950", Morris Bronstein 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 Homewood, Irwin Press, 1974, pp.429~455.

7) A. Gershenkron, "Ideology as a System Determinant", Alexand Eckstein ed., *Comparison of Economic Systems*, UC Press, 1971, pp.269~299.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이익이 도외시된 이념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Richard Lowenthal<sup>8)</sup>은 이 과정에서 혁명적 이상주의자들은 대중의 경제적 빈곤의 만성화라는 부담에 겨워 중간 노선을 걷는 실용주의자들에게 권력을 잃게 된다고 전망한다.

### 3. 중공식 선택

오늘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론적 초석을 이룩해 놓은 쑨야방은 벌써 1961년 6월에 발표한 그의 사회주의 경제론에서 Marx주의 자본론적 방법을 대함에 있어 “學而不套”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9)</sup> 특히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방식은 “가치의 법칙”과 “교환 및 유통”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자급적 자연경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장하다가 문혁때 큰 고초를 당하였다. 그의 충실한 시장경제원리의 추종자이며 현재 중국경제정책 연구 및 계획수립의 총사인 설모교<sup>10)</sup>는 자본주의적 노동가치(성과에 따른 배분)개념, 가격 및 유통체제, 경영책임제 등을 중공 사회주의에 도입, 정착케 한 주역이 된다. 특히 “이윤”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중앙으로 부터의 생산할당제를 비판한다. 그의 유명한 “소를 움직이게 하려면 억지로 밭을 쳐들게 할 것이 아니라 코 앞에 당근을 달아줘야 한다”는 비유는 오늘날 중공식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마침내 1986년 11월 13일 중공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Marxism이란 국가의

8) R.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the Communist Part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33~116.

9) 쑨야방, 「사회주의 경제론」 북경, 인민출판사, 1983년, 고인(1983년 작고)의 1961~83년중의 6개 논문을 한 데 묶어 출판한 것이다.

10) 薛暮橋, 아국국민경제적 조정화 개혁, 북경, 인민출판사, 1982 및 *China's Socialist Economy*,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1981.

정치활동을 위한 지도원리일 뿐, 학문연구에 있어 절대적인 지휘봉은 아니다. Marxism은 하나의 과학이며, 그렇다고 모든 학문의 위에 서서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원리의 한 분과는 아니다. Marxism과 비Marxism이데올로기간의 쟁점은 자유토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선언적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중공에 있어 실용주의 노선의 공식화인 셈이다. 사실 그에 앞서 등소평은 “마르크스는 죽었다”라고 갈파했는가(86.5)하면, 인민일보도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이론”(84.10)이라는 자기 비판이 나온 바 있다.

## II. 경제개혁의 특성과 성과

### 1. 개혁의 성격

중공은 제11기 4중전회('79.9.20)에서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역사적 과오로 인정하면서 4개현대화 계획이 현 단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업임을 결의한다. 그 철학적 기초는 「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 즉 실천은 진리검증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데 두고 있다. 모사상이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실천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실사구시 실용주의가 그 배경을 이룬다.

이에 따라 등소평체제는 문혁으로 인한 산업피폐와 경제혼란, 국민생활의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과감히 도입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노선의 실험(=모험)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등소평의 “인민들이여 우리도 잘 살아 보자(人民當起來!)”라는 슬로건에 잘 담겨 있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볼 때 50년대 이래의 소비에트형 계획경제체제는 중공토

양에서 생산력향상과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합으로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그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장치산(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 기획책임자)은 소련식 계획경제체제의 결합을 다음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한다.<sup>11)</sup>

(1) 경제에 대한 결정권이 너무 국가집행기구에 집중되었고, 계획과 집행에 대한 책임구분이 결여되었으며, 계획과 기본경제단위의 필수 요건인 자율성이 결여되었다.

(2) 공유제를 향한 일방적 추진만 강행하였을 뿐 다양한 경제형태와 계획방식은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주로 행정구역과 지역에 따른 수직적인 경제운용을 하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

(4) 경제를 지령식 계획으로만 조정하고 가치법칙과 시장기구를 무시하였다.

(5) 자력갱생과 주체적 체제건설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경제와 기술의 합리적 이용을 배제하였다.

(6) 평등주의의 실시와 분배의 통일적 지출은 기업과 노동자의 진취적인 정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實事求是」하의 경제개혁 방향은 경제가 주가 되고 정치가 종이 되는-바꾸어 말해 정치 중심의 국가관리로부터 경제 중심의 그것으로 이행되는 「정치적 경제화」를 겨냥하는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는 모택동하에서 이른바 홍과 전, 즉 교조주의와 실용주의의 대립관계를 정치(이데올로기) 우선으로 해결해온 「경제의 정치화」가 전도된 접근 방식이다.<sup>12)</sup>

따라서 이제까지 교조적 사회주의체제하의 내부적 모순이었던 과소생산·과소소비에 의한 국가경제의 대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

11) 김태홍, 증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단국대, 1986. pp. 79~80. (서길주역, 장치산저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방향」 중국보도, 1986. 8)

12) 증공의 경제개혁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서동훈, “증공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1986을 참조할 것.

제에 의한 정부와 당의 간섭을 대폭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자체의 변질을 초래시킬지 모를 공급(supply)과 수요(demand) 양면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소위 체제내와 체제외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공식 사회주의 개혁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중공식 실용주의 노선은 첫째, 사회주의적 요소의 자본주의화<sup>13)</sup>

둘째, autarky(폐쇄적 자급자족)적 대내 지향 방식으로 부터 상호 보완적 대외 개발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수반한다. 즉 중공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혼합경제를 이룩하여 중공식 사회주의로 채택하고 2000년대의 선진화를 겨냥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 2. 개혁의 성과

중공의 경제개혁이 먼저 농촌·농업부문으로 부터 시작하여 도시·상공업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중국경제에 있어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의미(전략)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보수성이 강한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부문이 갖고 있는 식량 및 원료 공급원으로서의 산업적 전략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농촌·농업부문에서 먼저 실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78년 중공 당국은 맨먼저 농촌의 인민공사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농지의 경작권<sup>14)</sup>을 개별 또는 협동(집체) 농장에 처음엔 5년간씩, 그후 84년엔 다시 15년간을 연장하면서 청부계약

---

13) 구체적으로 중공은 ① 인민공사제를 철폐하고 계약농제나 협동농제하의 생산책임 청부제를 채택하고 ② 중공계 우선주위에서 농업과 경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육성 ③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책임제 도입 ④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분권화 ⑤ 시장 경제원리의 도입과 자유기업 허용 ⑥ 단계적 사유개념의 인정 ⑦ "먼저 부자되기 운동"의 공인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동훈, 전제서, p.54.

14) 이때 여전히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됨으로 사적 소유 및 매매는 금지된다. 그러나 농민간의 토지의 상호 합병 경영과 교환이 가능하며 농업노동자의 고용과 이농도 허용되고 있다.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표1〉 공장업 총생산액과 국민수입의 신장율

(연평균: %)

구 분	①공장	②농업	③공업	공업총생산액		⑥ 국민수입	⑦ 인 구
	업총생 산액	총생산 액	총생산 액	④ 경공업	⑤ 중공업		
제1차5개년계획 (1953-57)	10.9	4.5	18.0	12.9	25.4	8.9	2.4
제2차5개년계획 (1958-62)	0.6	-4.3	3.8	1.1	6.6	-3.1	0.8
조 정 기 (1963-65)	15.7	11.1	17.9	21.2	14.9	14.7	2.5
제3차5개년계획 (1966-70)	9.6	3.9	11.7	8.4	14.7	8.3	2.7
제4차5개년계획 (1971-75)	7.8	4.0	9.1	7.7	10.2	5.5	2.2
제5차5개년계획 (1976-80)	8.1	5.1	9.2	11.0	7.8	6.0	1.3
제6차5개년계획 (1981-85)	9.6	11.0	9.0	10.5	7.7	9.2	1.2

자료: 「중국총담」, 1986년판(財)霞山會, 동경, 1986.7.

주: \*는 1981~84년

제, 일명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생산책임제란 경지(면적)에 따라 할당된 농산물(주로 곡물)을 공정가격으로 정부에 팔고 초과 생산한 수량과 나아가서 여력을 이용, 재배한 기타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sup>15)</sup> 그 결과 총농수축 생산량은 1979~84년중에 연평균 9%(금액으로 11%)의 성

15) 이 제도의 성공적 수행으로 곡물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수매해야 할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는 이유로 1985년부터는 예약수매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이 높은 부산물과 환금 작물로 농가의 생산활동이 옮겨짐에 따라 곡물생산은 85~86년중에 크게 정체됨.



장을 보임으로써 1953~78년중의 년평균 3.3%를 훨씬 앞지르게 된다.<sup>16)</sup> 그리하여 농가의 상품화율(시장 또는 정부에 내다 파는 수량비율)은 1978년의 35%가 84년엔 53.3%에 이르게 되고 전체농가의 15% 가량이 전문상업농으로 분류될 만큼 시장지향적인 농업으로 바뀌어 졌다. 이와 때를 맞춰 “먼저 부자되기 운동”, “일만원 농가 소득 먼저 올리기 운동”이 벌어진다. 小麥(밀)을 제외한 식량의 전체적인 자급자족이 마침내 중공 역사상 명실공히 달성됨으로서 10억 인구는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옥수수과 콩등 일부 곡물은 해외에 수출되었다.

다른 한편 생산책임제의 성공으로 농촌 및 도시지역은 자유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고 자유경쟁가격제의 사적 거래시장과 개인상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남으로써 마침내 관영시장 거래규모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기업 및 산업부문도 중앙집권제 아래서는 당과 행정기관의 부속물에 불과하던 것이 79년부터 자율성을 확대하고, 81년 부터의 「경영책임제」의 도입, 임금체계의 신축적 운용, 기업내 이윤유보 허용을 비롯, 84년 10월 제12기 3중전회의 도시 및 산업분야에 대한 「경영체제의 개혁」 조치를 계기로 전략 품목을 제외한 물품의 시장경제적 가격체제의 적용이 허용되고 경영자 책임하의 근대적 임금 및 고용제도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80년대에 들어 중소공업과 상업·서비스업에 자유 개인기업이 권장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사실이다. 그 결과 경공업 총생산액은 78~85년 사이 년평균 11%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가격제도의 개혁과 자유기업의 허용이다. 그동안 중공의 가격제도는 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엄격한 중앙통제방식의 국가관리로 운용되어 왔었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간, 계획목표와 실제 수요사이, 원가(가치)와 시장가격간 그리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에 괴리현상이 일어남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운용을 크게 저해하였다. 국무원 부총리(재무담당) 전기운은 이에 대해 인민일보 85년 1월 8일자 “積極穩妥地搞好價格體

16) *Far-Eastern agriculture*, 1985. 9~10, pp. 18~20.

系的改革” 제목하의 발표에서 비합리적 가격제도로 인해, (1) 서로 다른 상품 사이의 가격 비교가 불합리하고, (2) 주요 농·부산품의 소매 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하며, (3) 동종상품 사이의 품지 차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개혁조치의 결과 중요 소수의 민생 및 전략물자와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국무원 산하의 물가총국과 관계부서, 성, 시가 관리(국가지정가격제)하되, 그중 일부 공급불안정을 빚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하 20% 범위내에서 가격변동을 허용(부동가격제) 하였다.

한편, 기업간에 직접 거래되는 공산품(주로 소형상품)과 생산할당량을 초과 생산한 농산물중 국가기관에 파는 것에 대하여는 매매쌍방간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케 하는 협의가격제를 허용하였다.

끝으로, 중공경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의 가격결정은 자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조건에 의해 행해지도록 조치(자유시장가격제)하였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과 농부산물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이 범주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중공 사회주의체제의 만성적 고질이었던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취약했던 유통조직과 방법에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은 앞서 소개한 바 손야방에 의해 60년대에 이미 비판된 바 있다. 즉 소비에트체제하에서는 생산후의 배급(rationing) 또는 분배(distribution) 개념만 있지 유통(marketing) 개념은 부재하였고, 그나마 정부기구에 의한 행정적 물량 배급을 뜻하는데 불과하다는<sup>17)</sup> 것이다.

생산지에서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주체를 못하고 소비지에서는 모자라 품귀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중공의 실용주의 당국은 맨먼저 도시지역 유통을 담당하던 상업부로 하여금 농촌지역 유통 기관인 공소합작사(공급 및 유통협

17) Lee, Chong-yeong, "Theories and Policies on Marketing Reform in China", 식품유통연구 2권 1호 한국식품유통학회, 서울, 85.5, pp.77~98.

##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동조합)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유통조직을 통일하였다.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로 농산물을 싣고 나가 직접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농촌지역의 합작사와 그 산하기구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상품구매와 판매행위를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기존의 국영 및 집체(단체) 소유 상품 이외에 개인 사업을 허용함은 물론 서비스업에 적극 자유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소매업에서의 개인기업의 판매액 비중이 1978년 7.6%에서 85년에는 29%로 급성장했다. <표2>

도·소매업 및 음식, 기타 서비스업을 통털어서는 84년 현재 개인기업의 비중이 14.6%가 되며 업체수로는 80%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결부하여 개인기업이 경제 각부문에 차지한 비중(85년 현재)을 보면 도시 고용의 3.5%, 농촌소득원의 90.6%, 총공업생산의 12.1%로써 개인기업의 빠른 확대속도로 감안할 때 앞으로 서기 2000년 이내에 전체경제의 반 이상이 사적 자본주의적 경영으로 차여질 전망이다.

문제는 사기업의 신장은 필연적으로 Marx-Lenin 사상에서 금기로 삼고 있는 개인(인민)이 개인을 고용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자본가와 고용인 관계가 성립됨으로 인해 잉여가치설에 따른 착취-피착취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조타(운용)하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중공의 경제개혁은 이외에도 금융, 세제, 재정제도의 개혁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앞에 소개한 다른 개혁조치와 마찬가지로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자본주의적 수단과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대외경제개방정책과 무역확대이다. 중공은 1979년 7월 외자 도입과 기술합작 그리고 외국인의 중공내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중외합작기업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80년 8월과 10월에는 연해지방인 深圳, 珠海, 汕頭, 廈門 4곳의 경제특구 설치를 결정했다. 이는 일종의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으로서 한국의 마산, 이리 수출자유공단 또는 대만의 고흥공단과 같은 성격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표2> 주요경제지표(1978~85)

(단위 : %)

구	분	1978	1982	1985
도 시 고 용				
국 영 기 업		78.3	75.5	70.2
집 단 기 업		21.5	73.2	25.9
개 별 근 무 자		0.2	1.3	3.5
농 촌 소 득 원 <sup>1)</sup>				
집 단 경 영		71.2	23.7	9.4
개 인 경 영		78.8	76.3	90.6
국영기업의 대금체제				
고 경 봉 급		85.0	46.4	59.5
상 여 금		2.3	10.9	15.1
기 타 <sup>2)</sup>		12.7	24.7	25.4
공 업 생 산				
국 영 기 업		80.8	77.8	70.4
집 단 기 업		19.2	21.4	27.7
기 타(개인 및 사영)		-	0.8	1.9
공 업 생 산(향진기업 포함)				
국 영 기 업		77.7	73.8	63.0
집 단 기 업		18.5	20.3	24.8
기 타(개인, 사영, 향진기업)		3.8	5.9	12.1
국 가 예 산				
새 입/GDP		35.1	29.1	29.3
지 출/GDP		34.9	30.6	29.9
투 자/총국내투자		27.6	21.1	14.7
저 축/총국내저축 <sup>3)</sup>		43.5	18.0	22.8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구	분	1978	1982	1985
농 촌 구 매				
	통제가격구매	84.7	57.5	35.9 <sup>5)</sup>
	통제가격이상구매	7.9	20.8	33.6 <sup>5)</sup>
	협상·시장가격구매	7.4	21.7	32.5 <sup>5)</sup>
소 매 <sup>6)</sup>				
	국 영 기 업	85.4	70.6	37.1
	집 단 기 업	7.0	14.8	33.9
	개 인 기 업	7.0	14.6	28.9
무 역				
	대외경제무역부 산하 무역공사	94.3 <sup>3)</sup>	79.8	72.2
	기 타	5.6 <sup>3)</sup>	20.2	27.8
수 출				
	대외경제무역부 산하 무역공사	97.3 <sup>3)</sup>	79.8	81.5
	기 타	2.3 <sup>3)</sup>	20.2	18.5
수 입				
	대외경제무역부 산하 무역공사	91.7 <sup>3)</sup>	80.2	66.1
	기 타	8.3 <sup>3)</sup>	19.8	33.9

자료: 국가 통계국

- 주1) 이전소득, 후생복지 지급 등 기타 농촌소득 제외
- 2) 잡직수익, 초과근로수당, 보조금 포함
- 3) 80년 통계
- 4) 국가예산의 경영흑자
- 5) 1984년 통계
- 6) 자유시장에서의 도시와 농촌주민에 대한 판매포함

이다.<sup>18)</sup>

이 네개의 경제특구외에 중공은 “연해지역부터 부유케 하자”는 전략에 따라 84년 4월 상해, 천진, 대련, 광주시를 비롯 14개 연안 도시를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의 도입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85년 7월 중공당국은 사회간접자본 여건 미비를 이유로 상기 4개시를 제외한 10개 시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각종 계약을 점진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무역관리제도를 크게 고쳐 이제까지 국무원의 통제하에 대외무역전업총공사에 의해 전담되던 무역업무를 여건을 갖춘 성, 자치국, 직할시와 정부기업에까지 이양 또는 허용함에 따라 대외무역—특히 수입이 한때 크게 늘어난다. 그리하여 86년초 무역수지적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부 전략 품목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무튼 개혁 이전인 77년에 대비 1985년도의 대외무역량은 4배가 늘어났고, 그중 수출은 3.4배, 수입은 4.6배가 각각 증가함으로써 년평균 27%의 무역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식 국교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실제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보이며 외교관계가 되있는 북한과의 그것을 앞지르고 있다.

---

18) 일설에 의하면 네 곳의 경제특구 설치의 장차 중공에 흡수된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이 중공에 통일될 경우 갑작스런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표3〉 중공의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년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무역총액 (증감율)		148.0 (10.1)	260.4 (42.1)	293.3 (42.1)	378.2 (28.9)	403.7 (6.7)	393.0 (△2.7)	407.3 (3.6)	497.7 (22.2)	592.1 (19.0)
수출액(FOB)		75.9	136.6	136.6	182.7	208.9	218.2	220.0	244.1	258.0
수입액(CIF)		72.1	156.7	156.7	195.5	194.8	174.8	185.3	253.6	334.1
무역수지		3.8	△20.1	△20.1	△12.8	14.1	43.4	36.7	△9.5	△76.1

자료 : ① State Statistical Bureau, PRC, op. cit., p. 508.

② 「1985년」은 1986년 3월 25일 제6기 전인대 제4차회의에서 조시양 총리의 보고수치임.

〈표4〉 한국·중공 간접교역 추이(홍콩 경유)

(단위 : 100만 홍콩달러)

연도	중공 → 한국	한국 → 중공
1979	-	28.9
1980	165.8	225.2
1981	413.2	811.0
1982	569.0	338.2
1983	839.2	327.3
1984	1,144.7	1,254.1

자료 : 국토통일연구원실, 「중공의 현대화 추진동향과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서울 : 국토통일원, 1985), p. 198.

### Ⅲ. 중국식 사회주의의 한계와 전망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중공의 경제개혁은 자본주의방식의 경제수단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확실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중공 당국이 당초 제시했던 농공업생산 4배가목표<sup>19)</sup>, 즉 경제효율의 제고를 통하여 서기 2000년까지에는 1980년에 비하여 농공총생산액을 그 4배인 2조8천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화」를 주요 골간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는 Marx-Lenin의 교조주의와는 달리 체제내적 이질변화와 체제외적 이질변화의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진통이 배가한다. 그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한계와 사유권 자율권 부여의 한계, 중공업 및 국방산업 후퇴의 한계, 그리고 대외개방의 한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86년말부터 적극적으로 일고 있는 민주화요구에 대한 중공당의 이른바 반브르좌사상오염캠페인이 비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의 전략에 대해서만은 논쟁거리로 삼지 말자는 합의(인민일보 87.1.1 원단사록)하에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경제개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당·경분리가 필연시되는 갈등을 여하히 조정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실용주의노선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거기에 경제개혁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각종 시행착오와 이데올로기적 갈등 등으로 인해, 현재와 장래의 정·경정책 향방에 혼란을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 power game의 논리를 사상하더라도 경제이론상 경제발전 과정에 이미 예정되었던 당연한 혼란(=불균형) 현상이라고 예단이 가능할 만큼

---

19) 「4배가 계획」은 당초 82.9 호요방 중공당 총서기에 의해 제안되고 82.12. 조자양 총리가 제5기 전인대에서 공식 발표했음.



저간의 경쟁체기조는 확대균형 목표에 고착된 채 전술적 변화만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이다.

즉, 지난 8년간 경제개혁→수입증대→물량확대·경제과열·무역적자→경제조정·수입억제→감속성장→경제제도개혁·조정의 강화 등의 코스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고유의 중앙계획체제와 시장경제원리의 배합점을 그때 그때 그 수준과 정도를 달리하여 조절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중공의 경제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과거 개방부문의 규모가 저위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와는 달리 당·정·경 체제간의 권력 및 역할분담에 있어 이해의 첨예화 현상이 노출됨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이념투쟁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최근 중공 지도층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반 브르좌사상을 둘러싼 이념=권력 대립현상은 본질적으로 경제개혁=대외개방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당·경유착에 의한 기득권 확보나 아니면 당·경분리에 의한 경제권의 이양이냐의 형이하적 갈등이 내연한 주도권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공의 경제개혁이 초보적 시장경제원리인 청부계약제(생산책임제), 잉여농산물의 판매자유화, 인민공사별의 폐지, 농촌산업화의 진흥 등 시장경제원리를 농업부문에 도입하여 크게 성공을 보았을 때까지는 이념분쟁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농촌개혁의 바람이 도시 및 공업부문에 이행되어 중앙계획에 대신한 경영책임제와 해외로부터의 기술·자본의 도입이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계획(당우위) 제도와 관리책임(시장경제원리우위) 제도간의 불균형으로 크게 마찰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표면상의 대립요인이 이른바 「부정부패와 사상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중공의 장래에 있어 누가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건 이제까지 추진한 실용주의적 체제개혁의 물살을 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이미 요원의 불길이고 저변까지 번질대로 번진 농업·공업·상업부문의 개혁조치를 중단시키기에는 돌아설 수 없는 일차적 성공이 이미 증명된

##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도정에 이르렀다는 점, 둘째, 외국기술·자본의 도입에 의한 중공의 현대화계획은 어느 정파에 의해 실권이 장악되건 계속 추진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범국가적 범국민적 과제로 되어 버렸다는 점, 셋째, 각 경제단위의 경영상의 독립성 부여 문제는 이미 상업적 경쟁체제를 부인하지 않는 한 계속 확대 요구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세기동안 잠재워 왔던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인에 특유한 중화사상과 중국식 실용주의 그리고 利財의 商才, 그리고 소비문화의 충동심이 국가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 서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예단은 앞서 소개한 중앙경제체제의 객관적 변화와 광범위한 실증적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어떤 체제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될 수는 없고, 사실과 변화의 적나라한 소개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 인 용 문 헌

- 金泰弘, 중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분석, 단국대학교, 1986.
- 徐東蕪, 중공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86.
- 徐吉洙譯(張治上著),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방향, 중국보도, 1986. 8.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중공의현대화 추진동향과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 1986.
- 薛暮橋, 아국국민경제적 조정화개혁, 인민출판사, 북경, 1982.
- 孫治方, 사회주의 경제론고, 인민출판사, 북경, 1983.
- (財)霞山會, 중국총람 1986년판, 동경, 1986. 7
- Bergson, Abraham, "Development Under Two Systems : Comparative Productivity Growth Since 1950", Morris Bornstein 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 Models and Case, Homewood Irwin Press, 1974.
- Chenery, Hollis,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0.
- Patterns of Development 1950~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Dernberger, Robert F.,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China's Economy Looks Toward the Year 2000, Vol. 1,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Washington, D. C., 1986.
- Gershenkron, A., "Ideology As a System Determinant", Alexand Eckstein ed., Comparison of Economic Systems, UC Press, 1971.
- Kutznets, Simon, "Modern Economic Growth : Findings and Reflec-ions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3.

中共經濟改革의 特徵과 展望

- Lee, Chong-Yeong, "Theories and Policies on Marketing Reform in China"
- Lowenthal, R., "Development Vs. Utopia in the Communist Party",  
Char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Tinbergen, Jan, The Theory of the Optimum Regime,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59.
- Xue, Muqiao, China's Socialist Economy, Foreign Language Press,  
Beijing, 1981.
- Fas-Eastern Agriculture September/October 1985, Hong Kong.